

한상도 세대교체... 젊은 리더들을 주목하라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회사를 이끄는 김은미 CEO, 우즈베키스탄에서 식음료·농산물을 판매하는 김주승란 매니저, 독일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박상범 CEO, 러시아에서 무역업을 하는 윤유리 CEO..

세계 각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젊은 한상(韓商)들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는 '한상 네트워크'의 주축이었던 1세대 한상을 비롯해 '젊은 피'가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이 참여해 보다 '젊어진 한상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40대 미만의 젊은 동포로 구성된 신진 한상의 모임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oung Business Leader Network) 회원도 역대 최대인 120명이 참석한다.

고해정 YBLN 회장을 비롯해, 스웨덴 파나고라의 송문석 대표, 심영진 헤이코리안 대표, 최상민 ESD 대표 등이 명함을 내밀 예정이며 임수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CFO와 문성찬 삼문그룹 부회장은 각각 임진빈 회장과 문대동 회장의 아들로 참석해 대를 잇는 한상이다.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CEO SUITE'의 김은미 대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작해 현재는 7개국 8개 도시에 1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세상이 답하게 하라'를 출간, 국내 젊은층에게 '멘토'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여성 한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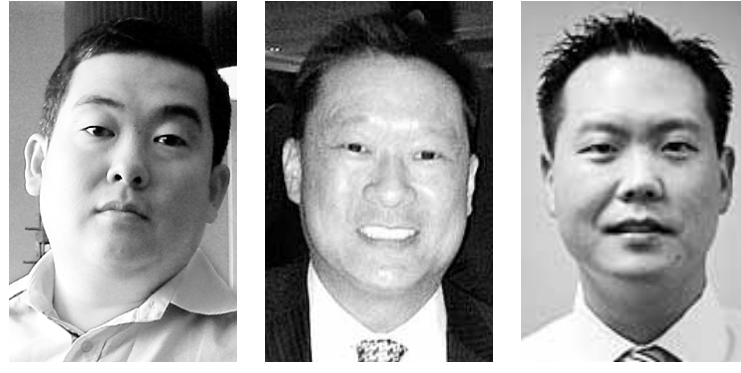
2010년 스웨덴 최대 일간지와 경제 주간지에서 초고속 성장기업으로 선정된 스웨덴 파나고라의 송문석 대표는 포화상태에 이른 온라인 쇼핑물 운영·관리 시장에서 새로운 판매 모델과 운영 관리 기법을 도입해 성공시킨 차세대 한상으로 꼽힌다.

홍명기 한상대회 대외장은 "젊은 한상들이 조직화 돼 포럼을 갖는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만큼, 1세대 한상들이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상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카타르의 이말재 한국관 대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후추 등 향신료 사업을 하며 미지를 개척하고 있는 최경열 ㈜공간 대표,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발전플랜트 계약을 따내며 연매출 3000만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상민 ㈜ESD 사장 등이 광주를 찾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고해정 YBLN 회장
심영진 헤이코리안 대표
최상민 ESD 대표 등
40대 미만 '영비즈니스리더'
회원 120명 참석 역대 최대



윤유리 임수혁 문성찬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들이 '성공대회 개최'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은미 'CEO SUITE' 대표, 홍명기 대외장, 고해정 YBLN 회장, 흥진태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업기업과 일대일 미팅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광주 세계한상대회 홍명기 대외장

“행사 개막 전에 수출만 2억 달러, 투자 유치도 1억 달러 가까이 달성했습니다. 호남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한상대회인 만큼, 한상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로 컸습니다.”

28일 광주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기(80) 대외장(미국 듀라코트사 회장)은 “지역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한상대회”를 다짐했다.

홍 회장은 “역대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한상대회에는 업종별 일대일 미팅과 개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해외 바이어도 처음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은 물론, 참여한 한상과의 수출 상담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 것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 “한상의 세대 폭이 넓어짐에 따라 젊은 한상들을 위한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며 “차세대 한상들이 한국에서 교류하고 인연을 맺어 고국을 전 세계 알릴 수 있게 된 점도 장차 기대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호남지역 기업의 참여 열기에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해외 한상이 광주·전남지역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85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

그는 “지역 기업들이 당장의 결과물을 넘어 이번 인연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만 해도 분명히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이런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친선무역협회나 리딩CEO 등 네트워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51세의 나이로 내구성 강화도료를 만드는 ‘듀라코트’사를 설립했다. 듀라코트는 현재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연매출 2억 달러

를 올리는 세계 ‘빅5’ 특수페인트기업이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인재 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2001년 1000만 달러를 출연해 ‘밝은 미래 재단’을 설립, 교육 및 장학사업에 나선 것을 비롯해 동포들의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은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및 공로로 지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지난해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시 화장률을 70% 넘어설 듯

69.6%로 매년 3~5% 상승... 전남 57.4%

광주시의 화장률이 20년 만에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통 장묘문화가 강세인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0%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전국 화장률이 74.0%로 집계됐으며, 이는 20년 전인 1992년도 평균 화장률인 18.4%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85.8%), 울산(81.8%), 서울(81.5%) 순이었다. 광주는 69.6%의 화장률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남은 57.4%로, 충남(55.9%)에 이어 전국 시도 중 화장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광주는 해마다 3~5%씩 화장률이 상승하면서 올해에는 화장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에서는 현재 하루 평균 27.3건의 화장이 이뤄지고 있다.

장흥군(35.6%)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청양군(26.5%)과 무주군(30.8%)에 이어 화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상승함에 따라 오는 2015년이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별 화장시설은 전국적으로 55개소 314개로(화장로)가 있으며, 광주는 1개소 9개로, 전남은 목포(3), 여수(4), 순천(3), 광양(3), 소록도(1) 등 5개소 14개소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원전 6기, 비상발전기 안되면 통제 불능

한빛 1~2·고리 1~4호기 '소내부하운전' 없거나 작동 안돼

국내 원전 가운데 6기는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비상발전기까지 가동하지 못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전 1~4호기와 한빛 원전(옛 영광원전) 1·2호기는 '소내부하운전'(HLO, House Load Operation)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국내 원전의 핵심인 고리 1·2호기는 아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고리 3·4호기와 영광 1·2호기는 HLO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운용상의 문제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HLO는 원자로가 가동되는데도 송전 선로 이상 등으로 전력을 내보내

지 못할 때 원자로의 출력을 최소화,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전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전력만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면 비상발전기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 원자료를 정지·냉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HLO가 안되고 비상발전기마저 작동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이진복 의원은 우려했다.

또 HLO 시스템이 없으면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된다. 이진복 의원은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원전이 외부 전원과 연계, 어떤 식으로 차단될지 모르는 만큼 모든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hucky@kwangju.co.kr

1면 '전남도 국감'서 계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F1대회가 5조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조급씩 안정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전남도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민간 운영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같은 당 문희상(경기 의정부 갑) 의원도 “대회 운영사인 FOM과의 계약

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도 “지자체 자체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적자폭은 많이 줄었으며 이를 더욱 줄이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4번째 대회를 치른 F1대회는 올 예상 적자 181억원을 포함, 모두 1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2013 신사업 아이디어 설명회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성공 창업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2013 신사업 아이디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외 유망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기회를 제시하고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및 업종전환과 경영개선 도모

1 행사 일정

■ 일시 및 장소

날짜	시간	지역	장소
10.29(화)	14:00~17:30	부산	BEXCO 제2전시장 121~123호
11.1(금)	14:00~17:3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308~310호
11.5(화)	14:00~17:30	서울	SETEC 국제회의장
11.6(수)	14:00~17:30	대구	EXCO 회의실 본관 306호

2 행사 내용

■ 강연 및 발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30	· 소상공인 창업 트렌드 및 창업시장 동향	창업전문가
14:30~16:00	· 신사업 유망 창업아이디어 소개	창업아이디어 발굴 전문가
16:00~16:40	· 소상공인 우수 창업 성공사례 발표	신사업 사업회지원 대상자
16:40~17:30	·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자본 창업	창업전문가

* 강연내용 및 시간은 설명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현장 창업상담

- 소상공인 창업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멘토링 등 상담부스 운영
- * 창업제반 절차안내, 입차계약시 세무자료, 소상공인자금지원 등

■ 기타

- 참석자 전원 신사업 아이디어 책자 무료 증정 『2014 소상공인 창업 이력 아이템에 주목하라!』
- 설명회 참석 신청절차 및 참석비는 없으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누구나 참석 가능

3 문의처

- 홈페이지 : www.seda.or.kr
- 이메일 : idea@seda.or.kr
- 연락처 : 042-363-7611~3

이주최 중소기업청

이주관 소상공인진흥원

2013 신사업 IDEA 설명회